

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

하나님과 친한 사람

사람은 누구나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덜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골라서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친해 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같이 전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분의 비밀도 알게 되며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께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 하용조